

# 출력 시간지연을 이용한 이산시간 선형시스템의 최적 출력 제어

(Optimal Output-Feedback Control for Discrete-Time  
Linear System with Time-Delayed Output)

鄭 鐵 煥\*

(Chul Hwan Jung)

## 要 約

본 논문에는 순간출력에 시간지연이 있는 출력을 첨가시킨 새로운 제어법칙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하여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제어법칙은 순간 계환제어법칙보다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써 일례를 들어 확인하였다.

##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the new control law which is defined by instantaneous output and time delayed output. To analyze the system with time delayed output, the way which transforms output time delayed systems into instantaneous output systems is presented. The output responses were more improved by the new control law than that of the instantaneous output control law. The algorithem for simulation and a numerical exemple are presented.

## I. 서 론

일반적으로 공정제어에서 입출력간의 시간지연이 있는 시스템은 그 해석이 복잡하고 제어가 어렵다. 그러나 시간지연을 역으로 이용하여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개선시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sup>[1~4]</sup> Jonson 등은 초기상태를 임의벡터 (random vector)

로 모델화시키고 그외에는 시스템이 결정적(deterministic)이라는 고정형태 제어기(optimal fixed configuration controller)를 제안한 후 최적출력 계환 제어기. 이론은 1982년 Kabamba, 1985년 Cheok 및 1986년 Kaczorek 등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다.<sup>[5~7]</sup>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은 순간출력 계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순간출력에 시간지연이 있는 출력을 첨가시킨 새로운 제어법칙과 제안된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하여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 제어법칙은 순간계환 제어법칙 보다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

\*正會員, 韓國에너지研究所 計測制御研究室  
(Dept. of I & C., Korea Advanced Energy  
Research Institute)  
接受日字 : 1988年 9月 13日

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써 그 일예를 들어 확인하였다.

## II. 본 론

이산시간이면서 시불변 선형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X(k+1) = AX(k) + BU(k) \quad (1)$$

$$Y(k) = CX(k) \quad (2)$$

여기서  $X(k)$ 는  $(n*1)$  상태벡터이고,  $U(k)$ 는  $(r*1)$  제어벡터이며,  $Y(k)$ 는  $(m*1)$  출력벡터이다.  $A$ 는  $(n*n)$  행렬,  $B$ 는  $(n*r)$  행렬, 그리고  $C$ 는 계수(rank)  $m$ 을 갖는  $(m*n)$  행렬이다. 순간 출력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다.

$$U(k) = F_0 Y(k) \quad (3)$$

시간지연 출력과 제어입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k) = CX(k) + V_1 Y(k-1) + \cdots + V_n Y(k-n) \quad (4)$$

$$U(k) = F_0 Y(k) + F_1 Y(k-1) + \cdots + F_n Y(k-n) \quad (5)$$

여기서  $n$ 은  $n > 0$ 이고 정수이며,  $V_n$ 의 값은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했을 때 변환된 시스템이 가제어성이 만족되는  $V_n$ 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시간지연 요소를 지연이 없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하여 상태벡터를

$$\hat{X}(k) \triangleq \begin{bmatrix} X(k) \\ Y(k-1) \\ \vdots \\ Y(k-n) \end{bmatrix} \quad (6)$$

와 같이 정의하면, 식(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begin{aligned} \hat{X}(k+1) &= \begin{bmatrix} X(k+1) \\ Y(k) \\ - \\ - \\ Y(k-n+1) \end{bmatrix} \\ &= \begin{bmatrix} A & 0 & - & - & 0 \\ C & V_1 & - & - & V_n \\ 0 & I & 0 & - & 0 \\ - & - & - & - & - \\ 0 & - & - & I & 0 \end{bmatrix} \begin{bmatrix} X(k) \\ Y(k-1) \\ - \\ - \\ Y(k-n) \end{bmatrix} + \begin{bmatrix} B \\ 0 \\ - \\ - \\ 0 \end{bmatrix} U(k) \end{aligned} \quad (7)$$

여기서  $\hat{A}$  및  $\hat{B}$ 를 각각

$$\hat{A} \triangleq \begin{bmatrix} A & 0 & - & - & 0 \\ C & V_1 & - & - & V_n \\ 0 & I & 0 & - & 0 \\ - & - & - & - & - \\ - & - & - & - & - \\ 0 & - & - & I & 0 \end{bmatrix}, \quad \hat{B} \triangleq \begin{bmatrix} B \\ 0 \\ - \\ - \\ 0 \end{bmatrix} \quad (8)$$

로 두면 식(7)은

$$\hat{X}(k+1) = \hat{A}\hat{X}(k) + \hat{B}U(k) \quad (9)$$

로 된다. 또한  $\hat{Y}(k)$ ,  $\hat{C}$  및  $\hat{F}$ 를 각각

$$\hat{Y}(k) \triangleq \begin{bmatrix} Y(k) \\ Y(k-1) \\ - \\ - \\ Y(k-n) \end{bmatrix} = \begin{bmatrix} C & V_1 & - & - & V_n \\ 0 & I & 0 & - & 0 \\ - & - & - & - & - \\ - & - & - & - & - \\ 0 & - & - & 0 & I \end{bmatrix} \begin{bmatrix} X(k) \\ Y(k-1) \\ - \\ - \\ Y(k-n) \end{bmatrix} \quad (10)$$

$$U(k) = [F_0 F_1 \cdots F_n] \begin{bmatrix} Y(k) \\ Y(k-1) \\ - \\ - \\ Y(k-n) \end{bmatrix} \quad (11)$$

$$\hat{C} \triangleq \begin{bmatrix} C & V_1 & - & - & V_n \\ 0 & I & 0 & - & 0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I \end{bmatrix}, \quad \hat{F} \triangleq [F_0 F_1 \cdots F_n] \quad (12)$$

로 두면(단,  $\hat{C}$ 의 계수를  $m'$ 라 한다.)

$$\hat{Y}(k) = \hat{C}\hat{X}(k) \quad (13)$$

$$U(k) = \hat{F}\hat{Y}(k) \quad (14)$$

이 된다. 식 (9), (13) 및 (14)는 시간지연이 없는 형태로 변환된 시스템방정식이다.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방정식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이산시간 시불변 선형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과 같이 시스템을 해석해 보면 시스템이 폐루프 시스템인 경우

$$\hat{X}(k+1) = (\hat{A} + \hat{B}\hat{F}\hat{C})\hat{X}(k) \quad (15)$$

가 된다. 이산시간 시스템의 성능지수(performance index)  $J$ 는

$$J = \sum_{k=0}^{\infty} (\hat{X}(k)' Q \hat{X}(k) + U(k)' R U(k)) \quad (16)$$

단,  $Q$ : 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matrix  
 $R$ : Positive definite matrix

로 표시된다.<sup>[9]</sup> 따라서 식(15)에 대한 성능지수는

$$J = \sum_{k=0}^{\infty} \hat{X}(k)' (Q + \hat{C}' \hat{F}' R \hat{F} \hat{C}) \hat{X}(k) \quad (17)$$

로 된다. 페루프에서 응답특성이 최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식(15)는 점근적으로 안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식(17)를 임의의 초기상태  $\hat{x}_0$ 로 표시하면

$$J = \hat{x}_0' L \hat{x}_0 \quad (18)$$

$$L = (\hat{A} + \hat{B} \hat{F} \hat{C})' L (\hat{A} + \hat{B} \hat{F} \hat{C}) + Q + \hat{C}' \hat{F}' R \hat{F} \hat{C} \quad (19)$$

로 표시된다.<sup>[9]</sup>

여기서  $J$ 는  $\hat{x}_0$ 에 비독립적이므로,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hat{x}_0$ 를  $E(\hat{x}_0)$ 의 평균 확률벡터로 가정하면

$$E(\hat{x}_0 \hat{x}_0') = \hat{X}_0 > 0$$

가 되며, 여기서  $E(\cdot)$ 는 기대치 연산자이며  $\hat{x}_0 > 0$ 이므로  $\hat{A}$ 는 positive definite 행렬이다.  $J$ 는  $\hat{x}_0$ 와 독립적인  $J$ 의 기대치  $J_E$ 로 대체할 수 있다.

$$\begin{aligned} E(J) &\triangleq J_E \\ &= E(\hat{x}_0' L \hat{x}_0) \\ &= \text{trace}(L \hat{X}_0) \end{aligned} \quad (20)$$

최적 응답특성을 얻기 위한 성능지수  $J_E$ 는 페루프 채환이득행열  $\hat{F}$ 의 함수이며, 따라서  $J_E$ 를 최소화하는  $\hat{F}^*$ 을 구하여야 한다.  $\hat{F}^*$ 는 임의의 행열  $\hat{F}$ 에 대하여

$$J_E \triangleq J_E(\hat{F}^*) \leq J_E(\hat{F}) \quad (21)$$

을 만족시킨다.  $\hat{F}$ 가 식 (19)와 (20)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J_E$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식 (19)와 (20)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Lagrange multiplier를 이용하면, Langrangian 0은

$$0 = \text{tr} L \hat{X}_0 + \text{tr} ((\hat{A} + \hat{B} \hat{F} \hat{C})' L (\hat{A} + \hat{B} \hat{F} \hat{C}) + Q + \hat{C}' \hat{F}' R \hat{F} \hat{C} - L) \Lambda' \quad (22)$$

단,  $\Lambda'$ 은 Langrange multiplier로 ( $n \times n$ ) 행열이다.

로 표시된다.<sup>[10]</sup>

따라서  $J_E$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Phi$ 가 최소로 되어야 한다. 이의 필요조건은

$$\frac{\partial \Phi}{\partial \hat{F}} = 0, \quad \frac{\partial \Phi}{\partial L} = 0, \quad \frac{\partial \Phi}{\partial \Lambda} = 0 \quad (23)$$

로 주어지며, 이들은 식(22)로부터

$$\frac{\partial \Phi}{\partial \hat{F}} = 2(B' L (\hat{A} + \hat{B} \hat{F} \hat{C}) \Lambda' \hat{C}' + R \hat{F} \hat{C} \Lambda' \hat{C}') = 0 \quad (24)$$

$$\frac{\partial \Phi}{\partial L} = \hat{X}_0 + (\hat{A} + \hat{B} \hat{F} \hat{C}) \Lambda (\hat{A} + \hat{B} \hat{F} \hat{C})' - \Lambda = 0 \quad (25)$$

$$\begin{aligned} \frac{\partial \Phi}{\partial \Lambda} &= (\hat{A} + \hat{B} \hat{F} \hat{C})' L (\hat{A} + \hat{B} \hat{F} \hat{C}) + Q + \hat{C}' \hat{F}' R \hat{F} \hat{C} \\ &- L = 0 \end{aligned} \quad (26)$$

로 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다.

〈정리1〉

$(\hat{A} + \hat{B} \hat{F} \hat{C})$ 가 점근적으로 안정한 행열이라면,  $\hat{F}^*$ 가 식(21)의 개념에서 최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해이다.

$$\begin{aligned} \hat{F}^* &= -(R + \hat{B}' L^* \hat{B})^{-1} \hat{B}' L^* \hat{A} \Lambda^* \hat{C}' (\hat{C} \Lambda^* \hat{C}')^{-1} \\ & \quad (27) \end{aligned}$$

$$L^* = (\hat{A} + \hat{B} \hat{F} \hat{C})' L^* (\hat{A} + \hat{B} \hat{F} \hat{C}) + Q + \hat{C}' \hat{F}' R \hat{F} \hat{C} \quad (28)$$

$$\Lambda^* = (\hat{A} + \hat{B} \hat{F} \hat{C}) \Lambda^* (\hat{A} + \hat{B} \hat{F} \hat{C})' + \hat{X}_0 \quad (29)$$

$L^*$  : positive semi-definite matrix

$\Lambda^*$  : positive definite matrix

〈정리2〉

$(\hat{A} + \hat{B} \hat{F} \hat{C})$ 가 점근적으로 안정한 행열이 되게 하는  $\hat{F}$ 가 존재하면  $J_E(\hat{F})$ 를 최소화시키는  $\hat{F}^*$ 가 존재한다.

정리 1과 2에 대하여 간단하게 증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증명1〉

본문 내용에서  $R > 0$ 이고  $\hat{X}_0 > 0$ 이며  $\hat{C}$ 의 계수가  $m'$ 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역행열  $\Lambda^*$ 이 존재한다.  $\hat{C}^{-1}$ 가 존재하면  $\hat{F}$ 는  $\Lambda$ 에 대해서 독립적이므로 식 (28)과 (29)는 표준 최적 선형 레귤레이터식으로 표시되어서 최적 채환이득행열  $\hat{F}$ 가 존재하는 식이 될 수 있다.

〈증명2〉

만약  $J_E(\hat{F})$  값이 있으면  $\hat{F}$ 의 안정성의 필요조건은 만족되고 안정하게 하는 이득집합

$$S_w = \{\hat{F} : (\hat{A} + \hat{B} \hat{F} \hat{C}) < 1, i=1, \dots, n\}$$

의 바운드된 부분집합  $S_w$ 를 취할 수 있으면  $\hat{F}$ 에 대해  $J_E(\hat{F})$ 는 연속적이고  $J_E(\hat{F})$ 를 구할 수 있어 충분 조건이 만족된다.

### III.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결과

채환이득  $F^*$  행열과  $J_E(F^*)$ 를 구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 1)  $A, B, C$  및  $X_0, Q, R$ 을 정한다.

- 2)  $P = (A + BF_0 C)$  가 점근적으로 안정한  $F_0$  를 구 한다.
- 3)  $i=1$ 로 두고 다음 방정식을 푼다.
- $$L(i) = (A + bF(i-1)' L(i) (A + BF(i-1)C) + Q + C'F'(i-1)RF(i-1)C$$
- $$A(i) = (A + BF(i-1)C) A(i) (A + BF(i-1)C)' + X_0$$
- 4)  $J_E = \text{tr}L(i)X_0$  를 계산하고  $J_E$  값이 최적이면 그 만 두고 그렇지 않으면
- 5)  $F(i) = -(R + B'L(i)B)^{-1}B'L(i)A(i)C'(CA(i)C')'$  를 계산한다.
- 6)  $(A + BF(i)C)$  가 점근적으로 안정하다면  $i=i+1$  로 두고 3)의 계산과정을 반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다.

위와 같은 알고리듬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을 생각한다. 즉,

$$A = \begin{bmatrix} 0 & 1 \\ -3 & -5 \end{bmatrix}, B = \begin{bmatrix} 0 \\ 1 \end{bmatrix}, C = [-2, -1]$$

이고, 이 시스템의 해석에 필요한 임의값  $X_0$ ,  $Q$ ,  $R$  및  $F_0$  를

$$X = \begin{bmatrix} 1 & -1 \\ -1 & 1 \end{bmatrix}, Q =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R = 1, F_0 = 0.2$$

로 각각 주었을 경우 최적 성능지수  $J_E(F^*)$ , 최적화된 케환행렬  $F_0^*$  및 안정시간  $T_s$  는 각각

$$J_E(F^*) = 1.6335, F_0^* = -0.138, T_s = 4.7\text{sec}$$

였다.

다음으로 시간지연이 있는 시스템을 생각한다. 자연시스템의 출력과 세어입력을 각각

$$y(k) = CK(k) + V_1 Y(k-1)$$

$$u(k) = F_0 Y(k) + F_1 Y(k-1)$$

로 두면 자연시스템의  $A$ ,  $B$  및  $C$ 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즉,

$$A = \begin{bmatrix} 0 & 1 & 0 \\ -3 & -5 & 0 \\ -2 & -1 & V_1 \end{bmatrix}, B = \begin{bmatrix} 0 \\ 1 \\ 0 \end{bmatrix}, C = \begin{bmatrix} -2 & -1 & V_1 \\ 0 & 0 & 1 \end{bmatrix}$$

그리고  $Q = \text{dig}(1 1 1)$ ,  $X_0 = \text{dig}(5 1 1)$ ,

$$R = 1, F_0 = 0.2, F_1 = 0.0$$

로 각각 두었을 때, 자연시스템의  $J_E(F^*)$ ,  $T_s$  및  $F^*$  은 Table 1 과 같았다. 본 시스템의 차수가 증가된 시스템이므로  $J_E(F^*)$  는 원래 시스템 보다 약 5배로 증가되었으나, 안정시간은 원래 시스템의 것에 비해 약 10배 이상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케환되는 정보량이 많을 수록 시스템의 성능지수가 작아

표 1. 시간지연시스템의 케환이득  $F_0^*$ ,  $F_1^*$ , 성능지수  $J_E(F^*)$  와 안정시간( $T_s$ )

Table 1. Settling time( $T_s$ ), performance index  $J_E(F^*)$  and feedback gain  $F_0^*$ ,  $F_1^*$  of the time delayed system.

| $-V_1$ | $T_s(\text{sec})$ | $J_E(F^*)$ | $F_0^*$ | $F_1^*$ |
|--------|-------------------|------------|---------|---------|
| 2      | 4.2               | 21.6569    | -0.108  | -0.144  |
| 4      | 2.8               | 8.8758     | -0.044  | -0.121  |
| 6      | 2.2               | 8.7559     | -0.037  | -0.149  |
| 8      | 1.7               | 8.6120     | -0.034  | -0.218  |
| 10     | 1.35              | 8.5711     | -0.034  | -0.290  |
| 12     | 1.15              | 8.5525     | -0.034  | -0.363  |
| 14     | 0.95              | 8.5391     | -0.034  | -0.437  |
| 16     | 0.84              | 8.5330     | -0.035  | -0.510  |
| 18     | 0.75              | 8.5298     | -0.035  | -0.656  |
| 20     | 0.67              | 8.5243     | -0.035  | -0.730  |
| 22     | 0.62              | 8.5216     | -0.035  | -0.803  |
| 24     | 0.56              | 8.5183     | -0.035  | -0.876  |
| 26     | 0.52              | 8.5180     | -0.035  | -0.949  |
| 28     | 0.49              | 8.5170     | -0.036  | -1.023  |
| 30     | 0.45              | 8.5161     | -0.036  | -1.096  |
| 32     | 0.42              | 8.5153     | -0.036  | -1.169  |
| 34     | 0.39              | 8.5147     | -0.036  | -1.242  |
| 36     | 0.37              | 8.5142     | -0.036  | -1.315  |
| 38     | 0.34              | 8.5138     | -0.036  | -1.388  |
| 40     | 0.32              | 8.5134     | -0.036  | -1.461  |

점으로서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최대값이 제한받는다.

Fig. 1 및 2는 각각 Table 1의 케환량에 따른 안정시간 및 안정시간의 개선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보면 출력시간지연 계수의 변화에 따라 안정시간이 줄어 들었음을 볼 수 있고 또 안정시간의 개선정도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간지연이 있는 시스템을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시스템 자체에 시간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출력시간지연을 첨가시켜서 응답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V. 결 론

본 논문에는 순간출력에 시간지연이 있는 출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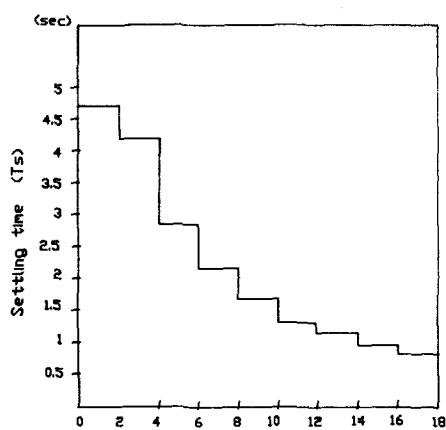


그림 1. 시간지연 출력계수 대 안정시간

Fig. 1. Settling time versus coefficient of delayed out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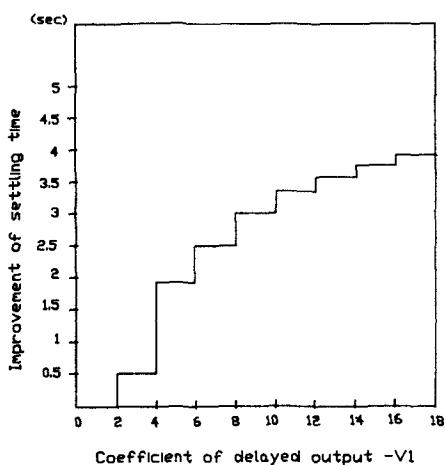


그림 2. 시간지연 출력계수 대 안정시간계선량

Fig. 2. Improvement of settling time versus coefficient of delayed output.

첨가시킨 새로운 제어법칙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하여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 제어법칙은 순간제환 제어법칙 보다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써 그

일 예를 들어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는 제안된 시간지연이 있는 시스템을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시스템 자체에 시간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지연이 없는 시스템으로 변환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다시 출력시간지연을 체가시켜서 응답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参考文献

- [1] J.E. Marshall, and S.V. Salahi, Improvement of system performance by the of time-delay elements, *IEEE Proc.* vol. 129 Pt. D., no. 5:177-180, September, 1982.
- [2] A.T. Bahill, A simple adaptive Smith-predictor for controlling time delay system, *IEEE Contr. Syst. Mag.*: 16-22, 1983.
- [3] D. Salaman, On controllability and observability of time delay system, *IEEE Trans Automat Contr.*, AC-29, no. 5:432-439, 1984.
- [4] E.W. Kamen, Khargonekar & A. Tannenbaum, Stabilization of time delay system using finite dimensional compasator, *IEEE Trans. Automat Contr.*, AC-30, no. 1:75-78, 1985.
- [5] P.T. Kabamba, Exact pole assigment using direct or dynamic output feed back *IEEE Trans. Auto. Control*, AC-27, no. 6: 1244-1246, 1982.
- [6] K.C. Cheok, N.K. Loh, and M.A. Zohdy, Discrete time optimal feed back controllers with time-multiplied performance index, *IEEE Trans. Automat Contr.*, AC-30, no. 5:494-496 1985.
- [7] T. Kaczorek, Deadbeat control of linear discrete-time systems by periodic output feed back, *IEEE Trans. Automat contr.*, AC-31, no. 12:1153-1156, 1986.
- [8] Kirk, D.E., Optimal control control theory,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80.
- [9] J.O. Reilly, On the design of discrete optimal dynamical controllers using a minimal order observer, *Int. J. Control.* vol. 23, no. 2:257-275, 1976.
- [10] Kirk, D.E., Optimal control theory, Prentice-Hall, Inc., 1970. \*

---

著者紹介

---



鄭 鐵 煥(正會員)

1960年 3月 20日生. 1983年 2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5  
年 2月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  
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1985年 3  
月 ~ 현재 한국에너지연구소 계측  
제어연구실 근무. 주관심분야는 자  
동제어, 실시간 데이터처리, 공장 자동화 등임.

---